



월드컵대표팀은 월드컵이 열리는 해외 1~2월에 매년 전지훈련을 갖는데, 여기에서 K리그의 육성자기가 작업이 진행된다. 22일 떠나는 올해 터키 전후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뉴스스

24인 태극전사, 터키행 최후의 미션...생존율을 높여라!

사커 토막

역대 대표팀 동계훈련 살펴보니...

월드컵본선 나설 후보자 점검 마지막 기회 신태용 감독 "3월엔 최종엔트리" 경쟁 예고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단 운영규정에 따르면 A대표팀의 경우, 월드컵 본선이 열리는 해외 1~2월에는 최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 보강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시기는 국제축구연맹(IFIFA)이 정한 A매치 기간이 아닌 탓에 유럽을 중심으로 한 해외파를 차출하기 어렵지만 최근 한국축구를 이끈 주요 사령탑들은 이러한 규정을 충실히 지켜왔다. 월드컵 본선에 나설 후보자들을 점검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터키 전지훈련' 신태용호 1월 친선경기 일정

일자	상대국	시간
1월 27일	몰도바	오후 10시
1월 30일	자메이카	오후 8시
2월 3일	라트비아	오후 11시30분

* 시간은 한국기준, 장소는 안탈리아 마르단스타디움

2018러시아월드컵 개막을 목전에 둔 올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신태용(48) 대표팀 감독은 22일 터키 안탈리아로 떠나 3차례 A매치를 포함한 약 2주 간의 동계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통과를 확정하자마자 이스케줄을 확정했다.

신 감독은 "유럽 원정으로 소화할 3월 평가전 시리즈부터는 사실상 최종엔트리 체제다. 동계훈련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선수만이 러시아까지 함께 할 수 있다"면서 이미 무한경쟁을 예고했다.

동계훈련 참가자들의 역대 월드컵 본선행 운영은?

구분	본선 최종엔트리 승선명단		비고
	출발	출발	
2006년 독일	김영광 이운재 김동진 김상식 김영철 김진규 조원희 최진철 김남일 김두현 백지훈 이호 박주영 이천수 정경호 조재진	16명 생존	
2010년 남아공	정성룡 이운재 김영광 강민수 김형일 오범석 이정수 조용형 김남일 김보경 김재성 김정우 염기훈 이동국 이승철	15명 생존	
2014년 브라질	김승규 정성룡 이범영 이용 박종우 하대성 김신욱 이근호	8명 생존	

2006년 독일 월드컵 본선 엔트리 23인 가운데 16명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사우디아라비아~홍콩을 돌며 진행된 강화훈련에 함께했다.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영표(토트넘 홋스퍼)~설기현(울버햄튼) 등 잉글랜드 3총사와 안정환(튀스부르크) 등 7명만이 동계훈련에 나서지 않고 본선에 합류했다.

월드컵 개최지 점검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스페인 말라가를 거쳤던 2010남아공월드컵 동계훈련 때도 생존율은 낮은 편이 아니었다. 4년 전과 비교해 1명이 줄어들었을 뿐이다. 그해 동계훈련에 나선 35명 가운데 15명이 본

문대로 향했다. 허정무(63·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 전 감독은 최대한 많은 인원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적극적인 점검을 했고 그 결과 많은 인員들이 지구촌 최대 스포츠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

홍명보(49·축구협회 전무) 감독이 지휘했던 2014브라질월드컵은 어땠을까. 일단 생존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브라질 베이스캠프지(이구아수)에서 몸을 만든 뒤 미국에서 친선경기 시리즈를 했던 동계훈련에 나선 태극전사 대부분은 본선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 골키퍼 3총사(김승규~이범영~정성룡) 이외에 필드플레이어 5명만 월드컵으로 향했다. 그 가운데 박종우와 하대성은 본선에 해외파 일원으로 참여했으나 동계훈련 때는 K리그에서 활약 중이었다.

이 같은 수치의 변화에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다. 그만큼 우리 선수들의 행선지가 한층 넓어졌고, 기회도 늘어나면서 해외 진출이 과거보다 훨씬 활발해졌기에 비롯된 현상이다.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

1 국내파 담금질 2 흠 속의 진주 찾기 3 유럽 예방주사

월드컵의 해, 역대 대표팀 훈련의 교훈

대부분 개최지 적응·강호들과 스파링 해외파 늘어난 2000년 중반 무용론도 2006 월드컵 대표팀 한달 이상 강행군

터키 안탈리아 전지훈련에 참가할 선수가 확정된 가운데 신태용호는 월드컵을 향해 한차례 맞을 올렸다. 대표팀은 22일 출국해 몰도바(27일), 자메이카(30일), 라트비아(2월3일)와 평가전을 치른다. 대표팀은 통상 월드컵이 열리는 해외로부터 해외로 나가 비지땀을 쏟았다.

국제축구연맹(IFIFA)이 정한 A매치(대표팀 간 경기) 기간이 아니어서 해외파가 빠지는 등 의미가 축소되긴 했지만 그래도 K리그를 중심

으로 한 소집멤버 중에서 육석을 가리는 작업은 의미가 있다. 역대 월드컵대표팀도 이 기간을 통해 본선 경쟁력을 갖춘 '흠 속의 진주'를 골라냈다.

1986년 멕시코월드컵은 한국이 32년 만에 본선에 오른 무대다. 기대가 컸던 만큼 준비기간도 길었다. 개최지 분위기를 익히기 위해 1985년 12월 열린 멕시코 4개국대회에 출전해 헝가리(0-1패) 멕시코(1-2패) 알제리(2-0승)와 상대하며 경험을 쌓았다. 이듬해 2월에는 홍콩 구장대회에 참가했다.

이후 서독으로 건너가 현지 클럽팀과 연습경기를 가졌는데, 분데스리가에서 뛰던 차범근도 합류했다.

1990년 이탈리아월드컵을 앞둔 2월에는 지중해에 위치한 몰타에 캠프를 차리고 노르웨이

(2-3패), 몰타(2-1승)와 평가전을 치렀다. 중동에서는 이라크(0-0무) 이집트(0-0무)와 경기했고, 스페인 세비야에서는 레알 베티스와 친선전(1-1무)을 가졌다.

1994년에는 본선 개최지 미국에서 저울을 보냈다. 2월26일 콜롬비아전(2-2무)에 이어 미국과 2차례(0-1패, 1-1무) 맞붙었다.

1998년 겨울도 분주했다. 차범근 감독이 이끈 대표팀은 1월 방콕에서 열린 김스컵에 다녀온 뒤 2월에는 뉴질랜드 및 호주에 캠프를 차렸다. 뉴질랜드(1-0승) 호주(0-1패)와 경기를 쌓았고, 호주 클럽팀 FC울링가머(1-2패) 시드니 유나이티드(1-0승) FC마코니(3-1승)도 상대했다.

거스 히딩크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대표팀은

2002년 1월 미국 LA에서 열린 북중미 골드컵에 출전했다. 결과는 썩 좋지 않았다. 미국에 1-2로 패한 뒤, 약재 쿠바와도 득점 없이 비겼다. 8강에서는 멕시코에 승부차기 승을 거뒀으나 준결승에서 코스타리카에 1-3으로 졌고, 3~4위전에서 캐나다에 1-2로 역전패했다. 비판이 쏟아졌지만 히딩크는 자신의 스케줄대로 밀고 나갔다. 장소를 옮겨 우루과이에서 훈련했고, 3월 중순에는 스페인 라방가에서 담금질했다.

2002년 4강 진출로 2006년 대표팀은 부담감이 컸다. 개막을 9개월 앞두고 지휘봉을 잡은 디아드보카트 감독은 선수파악과 조직력 강화를 위해 긴 훈련기간이 필요했다. 1월 두바이에서 UAE와 평가전(0-1패)에 이어 사우디 4개국대회에 출전했고, 홍콩 갑스버그컵에도 출전했다. 2월 중순에는 미국에서 3차례 평가전을 치르는 등 고밀도 강행군을 했다.

2010년 1월에는 개최지 남아공의 고지대 적응훈련이 우선이었다. 스페인 말라가에서 판란 및 라트비아와의 평가전을 치러 모두 이기며

분위기를 끌어올린 대표팀은 2월 도쿄에서 열린 동아시아선수권에 출전해 실전 감각을 쌓았다. 2014년에는 개최지 브라질로 먼저 날아가 베이스캠프인 이과수에서 훈련한 뒤 미국 LA에서 3차례 평가전을 치렀다.

역대 대표팀의 전문 양상을 보면 한국선수의 유럽진출이 붓물을 이룬 2002년 이후와 그 이전으로 나뉠 수 있다. 2002년 이전에는 유럽파가 드물어 소집 멤버가 사실상 최종 엔트리에 들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유럽파가 다수를 차지한 2000년대 중반 이후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K리그가 주축을 이루면서 최종 엔트리에 드는 인원이 급증했고, 전문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중요한 건 코칭 스태프가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다.

육성 부리기보다는 작지만 알찬 성과를 거두려는 목적의식이 필요하다. 아울러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며 전문을 소화할만한 분면 본선 경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형길 전문기자 choi92@donga.com

팬심 회복 프로젝트!...치앙마이로 떠난 인천

동진 팬심 돌리는 건 좋은 경기력 뿐 태극전후 통해 끈끈한 팀워크 다지기

인천유나이티드는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극 치앙마이로 전지훈련을 떠났다. 이번 전지훈련은 인천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2017시즌을 마친 뒤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팀이기 때문이다.

지난시즌 내내 하위권에 머물렀던 인천은 시즌 마지막 10경기에서 6승3무1패의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9위(7승18무13패·승점39)로 강등권을 벌어나는 성과를 올렸다. 한 시즌 동안 기록한 7승 가운데 6승을 막바지에 몰아서 수확하는 집중력을 발휘한 것은 인천이 자랑할만한 생존본능이었다.

하지만 팬심은 이미 돌아선 상황이었다. 서포터즈들이 구단의 정상화를 위해 대표이사과 감독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우려곡절을 겪었다. 일단



2017시즌을 마친 뒤 잡음이 끊이지 않아 마음고생이 심했던 인천 이기형 감독은 태극 전지훈련을 통해 팀을 하나로 묶겠다는 각오다. 사진제공 | 프로축구연맹

인천 구단은 2018시즌을 다시 한 번 이기형(44) 감독에게 맡기기로 했다. 신뢰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일부에서는 인천 구단이 이 감독에게 조

건부 계약을 제안했다는 말도 있었지만 인천 측은 "계약서에 그런 부분은 없다"고 일축했다.

기존의 이 감독, 박성철 코치, 임중용 코치, 권찬수 골키퍼 코치에 크로아티아 출신의 자스민 피치리 코치를 영입해 코칭스태프를 꾸렸다. 팀의 골격을 꾸민 인천은 이제 등 돌린 팬심을 다시 끌어와야 한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결국 좋은 경기력으로 팬들의 기대에 걸맞은 성적을 내는 것이다.

인천은 전지훈련 기간 동안 어수선한 팀 분위기를 바로 잡고 새 틀을 짠다는 계획이다. 최근 베테랑 미드필더 고슬기(31)를 부리람유나이티드로부터 임대 영입했고 대전시티즌(K리그2 챌린지)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측면공격수 이호석을 데려오는 등 전력보강도 했다. 새로 팀에 가세한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 간의 조직력을 다지는 것이 겨울 훈련의 필요요소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아픈 기억을 묻고 구성원 모두가 마음을 여는 원팀으로 만드는 일이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이 감독은 "모두 하나가 되어 2018시즌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챌린지도 올해 VAR 시행

(비디오판독)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K리그 클래식(1부리그)에 도입된 비디오판독(VAR)이 2018시즌부터 챌린지(2부리그)까지 확대 시행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5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18년도 K리그 1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비디오판독의 챌린지 도입을 최종 의결했다. "비디오판독의 도입 이후 오심 논란과 판정에 대한 불신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연맹 관계자의 설명이다.

물론 추가예산은 불가피하다. 10개 구단이 참

전북, 브라질 출신 공격수 티아고 영입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전북 현대가 티아고(26·브라질)를 영입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계약 기간은 3년. 브라질 명문 산토스FC 출신의 티아고는 미네이루, 파라냐를 거쳐 2015년 포항 스틸러스로 이적하며 K리그에 데뷔했다. 이후 성

역해는 챌린지까지 확대되면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챌린지는 플레이오프(PO)를 포함, 모두 182경기가 치러지며 클래식 230경기(승강PO 포함)를 더하면 총 412경기에서 비디오판독이 시행된다. 지난해 비디오판독을 위해 2억원 상당의 판독차량 3대와 시스템 장비를 구축한 연맹은 올 시즌 비디오판독 시행을 위한 운영위탁 용역업체 선정 작업에 나섰다.

한편, 전북 현대의 테크니컬 디렉터로 자리를 옮긴 조공연 전 경기위원장의 후임으로는 2002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최진철(47) 전 포항 스틸러스 감독을 선임했다. 남창현 기자

남FC에서 활약한 뒤 사우디아라비아 알 힐랄에 몸담았다. 빠른 드리블과 스피드가 우수한 왼발잡이 공격수 티아고의 합류로 전북의 측면 공격은 한층 강화됐다.